4경기 모두 QS하고도 0승… '비운의 에이스' 양현종

강한 상대 투수들과 맞대결 벌여
25이닝 던지고 평균자책점 1.44
득점 지원 부족에 수비 불안까지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내·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4월 2일 LG와의 개막전 선발로 나와 KBO리그 복귀 시즌을 열었다. 이후 8일 SSG 원정, 14일 롯데·20일 두산과의 홈경기 등 4경기를 소화했다.

4경기에서 25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의 평균자책점은 1.44. 하지만 승 없이 2패만 안고 있다. 팀은 양현종이 등판한 4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앞선 3번의 등판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던 양현종은 20일에는 7이닝까지 소화하면서 1실점 호투를 선보였지만, 이번에도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다.

기회는 있었다. 양현종이 1-1로 맞선 7회초를 삼자범퇴로 막고 마운드에서 물러난 뒤 7회말 KIA가 최형우의 적시타로 2-1을 만들었다. 승리투수 요건이 갖춰지면서 첫 승이 기대됐지만 경기는 3-4, KIA의 패배로 끝났다.

필승조 장현식이 출격한 8회 1루수 황대인의 포구 실책, 류지혁의 송구 실책이 나오는 등 중요한 길목에서 KIA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비 실책이 또다시 빌미가 돼 3-4가 됐다.

KIA가 8회말 김도영의 동점 적시타로 승리를 위한 뒷심싸움에 나섰지만 9회초 전상현이 대타 오재원과의 선두타자 승부에서 좌중간 2루타를 기록했고, 좌익수 이우성의 포구 실책이 더해지면서 양현종은 4번째 등판에서도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양현종은 개막전에서도 김선빈의 연속 실책으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양현종이 등판한 4경기에서 KIA는 8경기의 실책을 남겼다.

'에이스'의 숙명도 있다. 가장 먼저 시즌 스타트를 끊은 양현종은 로테이션상 어려운 상대들과 마운드 맞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양현종은 LG 플럿코, SSG 폰트, 롯데 박세웅 그리고 두산 스탁을 만나 숨 막히는 선발 싸움을 벌였다.

어려운 상대들과의 맞대결이 이어지면서 양현종은 화끈한 타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양현종이 출격한 2·8일 KIA는 단 한 점도 뽑지 못하고 영봉패를 당했다. 14일 20일에는 각각 2-3, 3-4패배가 기록됐다.

득점 지원도 부족하고 수비는 불안하다.

21일 두산전에 앞서 김종국 감독은 "승은 야수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20일 경기에서) 야수들이 애를 쓰는 모습은 보였는데 긴장감이 8회부터 풀려서 그런지 좋지 못했다"며 "매치업 상 강한 투수들을 만나니까 점수를 많이 못 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발목을 잡고 있는 수비 실수에 대해서는 '기본'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중요할 때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돼서 선수들이 더 소심해지고 경직된 모습이다. 훈련 때부터 편안하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빠르고 화려한 것보다는 정확한 게 중요하다고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건실한 플레이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야수진들의 침착한 플레이를 주문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6회에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1위 탈환하나

광주가 23일 안방에서 부천을 상대로 K리그2 1위 싸움에 나선다. 지난 11라운드 안양 원정에서 헤이스가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3일 오후 4시 광주축구구장
승점 1점차 부천과 선두 다툼

5경기 무패 중인 광주FC가 안방에서 뜨거운 선두 싸움을 벌인다.

광주는 23일 오후 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K리그2 2022 12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눈길 끄는 1위 싸움이다. 현재 두 팀은 승점 1점차 1·2위에 자리했다. 부천이 7승 2무 1패(승점 23), 광주가 7승 1무 2패(승점 22)로 선두 싸움을 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FC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은 내줬지만 엄지성, 헤이스의 득점에 힘입어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5연승에는 실패했지만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하면서 귀한 승점 1점을 더했다.

1위 탈환을 노리는 광주는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이번 대결에서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는 앞선 부천 원정에서 '골대 불운'에 울면서 0-2패를 기록했다. 첫 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광주 에이스 듀오의 발끝이 매섭다.

'광탄소년단'의 핵심 엄지성이 앞선 안양 원정에서 0-1로 뒤진 전반 27분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2호골을 장식했다.

아직 2골에 그치고 있지만 엄지성은 매 경기 위력적인 슈팅을 날리면서 광주 공격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헤이스는 자책골로 1-2로 뒤진 상황에서 시즌 5호골을 장식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장신 공격수 허율도 빛나는 조연으로 활약하고 있다. 허율은 안양 원정서 정확한 롱패스로 엄지성의 득점을 돕는 등 공격 장면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연출하고 있다.

정호연과 두현석은 후반 투입과 함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헤이스에게 골 상황을 만들어 줬다. 여기에 김현훈, 이으뜸 등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도 광주 무패행진의 바탕이 되고 있다.

부천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완벽한 공수 밸런스로 14득점 6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한지호, 박창준, 은나마니, 김준형 등 출중한 실력의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역대전적에서는 광주가 9승 5무 4패로 부천에 앞섰다. 또 광주에 하나 믿는 구석이 있다.

올 시즌 광주는 홈에서 강했다. FA컵 포함 홈 6연승을 달리고 있다. 광주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앞선 맞대결의 패배를 갚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부천과의 선두 싸움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장타자 변신 … 이소미의 '미소'

완도출신 KLPGA 투어 강자
넥센 마스터즈 1R서 66타
11번 홀에서 무려 322야드 날려

"비거리가 늘어나니까 골프가 한결 편해졌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최근 2년 동안 3승을 따내며 강자로 자리 잡은 이소미(23)가 장타자로 변신했다.

완도출신 이소미는 21일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 신어·낙동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8억원)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이소미는 이날 눈에 띄게 멀리 날아가는 장타를 터트렸다.

내리막이 심해 볼이 멀리 날아간다지만 11번 홀(파4)에서 무려 322야드를 찍었다.

이곳에서 장하나(30)는 314야드, 김지영(26)은 299야드를 때렸다. 장하나, 김지영은 KLPGA투어에서 손꼽는 장타자다.

이소미도 지난해 장타 순위 12위(평균 251.4야드)가 말해주듯 꽤 멀리 치는 편이지만, 이들 장타자 그룹에는 조금 모자랐다.

11번 홀과 비슷하게 티샷이 떨어지면 내리막을 타고 많이 구르는 3번 홀(파5)에서도 이소미는 314야드를 날렸다. 장하나는 이곳에서 283야드, 김지영은 297야드를 보냈다.

이소미는 3번 홀에서 195야드를 남기고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려 10m 이글 퍼트를 집어넣었다.

2곳 비거리 측정 홀에서 잰 이소미의 이날 드라이버샷 비거리는 256.2야드에 이르렀다.

이소미는 "겨울 훈련 하는 동안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비거리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10야드 넘게 늘었지만, 아이언샷 비거리도 반 클럽에서 한 클럽까지 늘어나 골프가 편해졌다고 이소미는 밝혔다.

놀라운 건 이소미는 시즌 개막 직전인 지난달 말 코로나19에 걸려 열흘 동안 집 안에서 격리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다.

"목 안에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느낌이 들 만큼 아팠다"는 이소미는 "코로나19 탓에 살이 제법 빠졌는데 비거리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겨울에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다.

이날 이글 1개에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도 적어내지 않은 이소미는 " 예상보다 바람이 덜 불어서 편했다. 후반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잘 대처했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소미는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 이번 대회는 컷 통과가 목표였다"고 털어놨다.

이소미가 21일 경남 김해에 위치한 가야CC에서 열린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2' 1라운드 17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즌 개막전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을 마치자마자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롯데 챔피언십을 치르고 지난 18일 귀국한 이소미는 시차 탓에 잠을 깊이 자지 못했다.

"어제는 일부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하고 18홀 라운드를 했더니 그나마 잠을 좀 잤다"는 이소미는 "걱정과 달리 첫날 성적이 좋아서 목표를 우승으로 바꿨다"며 웃었다.

3승 가운데 2승을 강한 바닷바람이 부는 코스에서 거둔 이소미는 22일 2라운드는 바람에 강한 오후에 경기에 나서야 한다.

이소미는 "바람에 강하다 해도 바람 속에서 경기하는 건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피곤하다"면서 "여건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인내하면서 기회를 노리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